

한국어 교과서 개발의 이론과 실제

이선한*

I.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과서 개발의 역사적인 회고

교과서 개발은 교육의 수요와 잘라놓을 수 없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역사적으로 소급하면 1946년 남경동방외국어전문학교 한국어학과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는 단편적인 한국어 자료를 가지고 한국말을 가르치는 데 그쳤을 뿐 한국어 교과서는 개발되지 못했다. 1950년 중국에서 전국적인 범위로 진행된 대학교 조절과 함께 남경동방외국어전문학교가 북경대학에 편입되면서 북경대학에 동방어문학부가 생기고 그 산하에 조선어학과가 설립되었다. 50년대 중국에서 외국어 인재수요의 급증에 부응하여 55년에는 남경군사외국어대학에 조선어학과를 설립했고(후에 이 학교는 낙양으로 옮기어 낙양군사외국어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58년에는 대외경제무역대학에 조선어학과(60년대 수년간 학생 모집을 중단하였음)를 설립하였다.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설립되면서부터 한국어 교과서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 북경대학 조선어학과에서 “조선어독본”이란 이름으

* 중국 북경대

로 내부용 교과서를 처음으로 편찬하였다. 1954년에 북경대학 조선어학과에서 평양에서 파견된 교수 유열에 의해 “조선어교과서”가 개발되었다. 50년대의 한국어 교과서 개발은 원시적 단계에 있었고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은 없다. 교과서 본문을 기본으로 하여 단어를 대역하고 문법을 설명하는 데 그쳤으며 교과서로서의 과학적인 체계는 이루지 못하였다.

63년경 북경대학 조선어학과에서 이전 10년간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를 총화하고 비교적 체계가 갖추어진 교과서를 편찬하여 내부용으로 인쇄하였는데, 이것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과서 개발의 효시가 된 것이다. 1965년 낙양군사외국어대학에서도 “조선말 기초”란 이름으로 한국어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그 체계는 북경대학의 교과서와 거의 비슷하다.

70년대에 연변대학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교육으로서의 조선어학부(72년도 설립. 78년-92년도 조선어 학부 폐쇄)가 설립된 것을 계기로 북경대학과 연변대학 양 대학이 협력하여 한국어교과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1972년, 1977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어기초교과서”를 편찬, 출판하였다. 이 교과서는 중국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처음으로 공식 출판된 것이다. 이 교과서는 문법 순서를 배열함에 있어서 쉬운 데서부터 어려운 데로 나열하는 점진적인 방법론을 채용한 것, 70년대 중국에서 외국어 교육을 진행하는 데서 보편적으로 수용했던 말틀(문형)위주의 교육방법을 도입한 것 등을 특징으로 지적할 만하다. 그러나 이 시기 중국의 정치적 사정으로 하여 교과서 본문의 내용에서 정치적인 것이 너무 많아 현실생활과 유리된 점, 문법과 말틀을 기본으로 편찬하다 보니 문장이 순수한 한국어 표달방식에 맞지 않아 생경한 점, 회화체와 서술체 문장이 적절하게 결합되지 못한 점 등은 이 교과서의 주요한 결함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는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실정에 맞게 교과서 체계를 구성하고, 특히는 한국어 교육에서 제기되는 점진적 방법의 문법적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그 후의 한국어 교과서 편찬에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80년대 초반에 대외무역대학에서 편찬 출판한 “조선어기초” 교과서는

중국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실체에 맞게 본문내용을 확대하고, 연습문제를 다양하게 구성한 특징을 보여 주고 있으나 전반적인 체계에서는 70년대 교과서와 거의 차이가 없다.

80년대까지만 하여도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특수한 사정으로 하여 평양말을 표준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말은 접할 기회도 별로 없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평양어 교육이었으며, 한국어 교과서 개발도 평양어 교과서 개발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와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중한 수교와 함께 중국에서는 한국어 교사 수요가 급속히 늘어났고, 그 시기를 전후하여 40여 개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를 개설했거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급변한 정세로 하여 기존의 한국어 교과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에 상응하여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에서 출판한 교과서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거나 한국의 교과서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의 교과서는 남한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중국 대학의 교과과정, 교육대상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중국인의 한국어 학습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중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1995년, 한국의 한 민간단체의 창안에 의해 96년도까지 중국을 대상으로 한 “표준한국어”가 개발되었다. 책표지에는 중국의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20여 개 대학의 명칭과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이름이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으나, 중국의 교수들 중 일부가 교과서의 번역에만 참여하였을 뿐 교과서 편찬에서는 소외되었다. 그리하여 중국 대학교 교육의 현실적인 요구가 도외시되고 중국인의 한국어 학습의 특징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 등으로 하여 중국의 한국어 교육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교과서가 되고 말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의 역사는 50년이나 되며, 중국과 한국이 수교한지도 벌써 7년이나 되니 중국에서 순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지도 근 10년이나 된다. 중국의 한국어 교육 종사자들은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

어 교과서 개발의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쌓아왔던 것이다. 이제 이러한 경험과 교훈을 살리고, 변화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과학적인 체계를 갖춘, 시대성과 참신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한국어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로 되었다.

필자는 다년간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면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개론적인 의미에서 한국어교과서 개발의 이론과 실천적인 문제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부연해 설명할 것은 필자가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분야는 언어학이 아니라는 점이다.)

II. 한국어 교과서 개발의 대상, 목적과 방법

일반적으로 한국어 개발을 시도함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의 대상, 목적, 방법 등을 기본으로 하는 총체적인 교육 계획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 대상에 따라 거기에 상응한 교육 목적이 결정되는 것이며, 교육 대상과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 방법을 교과서 편찬에 인입해야 하는 것은 자못 중요한 것이다.

개발하려는 교과서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가 하는 것이 명확하고, 또 그 대상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때라야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해 낼 수 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그것이 모국인을 대상으로 했는가 아니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는가 하는 점에서 엄연히 달라야 함은 자명한 것이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개발한다고 해도 중국인이냐 아니면 미국인이냐 함에 따라 서로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어로서 사용하는 중국어와 영어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언어이며, 사용하는 모어가 다름으로 하여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특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질 높은 한국어 교과서라면 반드시 모어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상호 비교 속에서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 어떠한 민족을 막

론하고 그 민족이 다른 한 민족의 언어를 습득하는 데는 다른 민족과 서로 구별되는 특성이 있기 마련이다. 만약 이러한 특성이 한국어 교과서 개발에서 도외시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잘 포장됐다고 해도 질 좋은 한국어 교과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1995년에 개발된 “표준한국어” 교과서는 질 좋은 교과서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같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한 한국어 교과서라고 해도 그것이 한국어를 전공으로 배우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가 아니면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가,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가 아니면 사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가 하는 데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이다. 한국어 습득 대상의 특성에 알맞게 한국어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은 질 좋은 한국어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선차적인 조건이 된다. 중국은 아직도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40여 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과서도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한국어 전공 대학생을 위한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임무로 나서고 있다. 앞으로는 중한 교류의 급속한 증대로 하여 한국어 학습자가 나날이 늘어나는 현실에 대비하여 점차 대상별로 한국어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과서 개발의 대상이 확정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뚜렷한 한국어 교육의 목적이 연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과서를 집필하기 이전에 그 교과서가 달성해야 할 목표치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이 명확하지 못할 때는 한국어 교과서 개발의 엄밀한 과학성과 체계성이 확보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교과서는 과학성과 체계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 되고 말 것이다. 한국어 습득자의 열독 능력 제고를 위한 한국어 교과서라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할 것이며, 한국어 능력 전반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 교과서라면 역시 거기에 가장 적합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과학적인 체계를 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한국어 교과서의 서언에서 그 교과서는 한국어 습득자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염두에 두고 편찬한 것이라는 글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가 교과서 전체에 과학적으로 관통되지 않고 말로만 막연하게 표현되었을 때 그것은 교과서 편찬의 맹목성에 빠졌다고 해야 할 것이며 적어도 교과서 편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과서 개발의 목적은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이 막연하게 설정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은 것이다. 한국어 습득자가 그 교과서를 통해 달성해야 할 단어 구사 능력, 회화 능력, 열독 능력, 작문 능력, 번역 능력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며, 그것에 상응한 양적인 목표치가 설정되어야 한다. 상술한 목적의 달성은 다년간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면서 한국어 교육의 풍부한 감성적인 지식을 누적하고 그 토대 위에서 이론적인 인식의 높이에 이를 때에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 확정되고 거기에 따른 목적이 명확하게 되면 한국어 교과서 개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되는 방법론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을 진행해 오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에만 그쳤을 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거의 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국어 교과서 개발도 그 동안의 한국어 교육의 이론적인 바탕에서 진행되었다기보다 경험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과서 개발의 방법론적인 연구는 극히 기초적인 단계에 처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된 교과서와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실상을 개략적으로 종합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법 기본의 교육법: 이것은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의 초기적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은 거의 극복된 상태이다.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본문을 선택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문법적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교과서도 이러한 방법에 의해 편찬될 수밖에 없어 한국어 습득자로 하여금 문법에만 매달리게 하는 폐단을 초래하게 된다.

문법, 문형 등 문장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법: 문법, 문형 등을 점진적으로 배열하고 문장구조를 본문 작성의 틀로 이용하며, 한국어 습득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틀을 통째로 외우도록 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편

찬된 교과서는 한국어의 구조적 측면을 강조하여 한국어 습득의 편의성을 시도한 일부의 장점은 있지만 표현이 자유롭고 풍부한 한국어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시되어 한국어 습득자로 하여금 생경한 한국말에만 매달리게 유도하는 약점이 있는 것이다. 비록 한국어 습득의 고급적인 단계에 가서는 순수한 한국어의 글들을 접촉하게 되어 이러한 약점이 어느 정도 극복되기는 하지만 기초적 단계에서 굳혀진 관습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교육법은 중국에서 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기능 기본의 교육법: 이러한 교육법은 90년대 순수한 한국어의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면서 한국의 교과서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생긴 것이다. 한국어의 사교적 기능을 중요시함으로써 순수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한국어의 문법적인 체계가 무시되고 본문 등이 회화체로만 작성이 되어 한국어 습득자로 하여금 한국어 문법의 난해성과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약점이 있는 것이다.

한국어 교과서 개발의 방법론적인 문제들은 상당한 깊이의 이론적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초기적 단계에 처해 있는 형편이며, 교과서 개발의 만족스러운 단계에까지 이르자면 끊임없는 실천과 이론적인 총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질 높은 교과서라면 한국어 습득자의 객관적인 요구와 한국어의 내적인 본질에 맞게 발음, 문법, 어휘, 본문, 연습, 문화적인 요소 등에서 과학적인 체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III. 한국어 교과서 개발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1. 언어 비교 문제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 모어와 대비하는 가운데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다. 모어는 제2언어를 습득하는 데 적극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영향도 주고 있다. 모어의 적극적인

영향을 극대화시킴으로서 모어의 소극적인 영향을 하루 빨리 극복하도록 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그러자면 모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는 대상에 한해서는 한국어 학습의 기초적인 단계에는 한국어와 모어의 발음체계, 단어체계, 문법체계, 표현방식 등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두 언어의 상의성과 부동성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기초 위에서 점차적으로 한국어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한국어로 사유하는 습관을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제2언어 습득의 이러한 특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국어를 무턱대고 배우도록 하는 것은 한국어 습득 과정이 지연됨으로 하여 매우 비효과적인 것이다. 모어와 한국어, 이 두 가지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는 교육자가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이 한국어에만 익숙한 교육자보다 한국어 교육에서 훨씬 효과적인 것은 이러한 원인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어만 알고 있는 교육자가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경우 습득자는 제 나름대로 늘 모어와 비교 속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려고 하는 만큼 두 가지 언어 조건이 구비된 전제하에서는 두 언어의 본질적인 것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과서를 편찬함에 있어서 기초적 단계에서는 발음적 측면에서 두 언어의 서로 부동한 특징을 명시해야 할 것이며, 단어, 본문, 예문 등을 번역해 주는 것으로서 두 언어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역문은 직역을 하는 것보다 모어의 표현방식에 맞게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두 언어의 상이한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문법, 문형의 설명도 그것이 확연히 비교가 되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 한국어 습득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교는 어디까지나 한국어를 보다 정확히, 그리고 보다 능숙히 장악하고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한국어 습득자를 교육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어 학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제쳐 놓고 언어 비교에

만 매달리는 폐단을 초래할 수도 있다.

2. 발음 문제

발음은 언어의 물질적 외피로서 어느 한 언어를 배울 때 우선 발음을 접촉하게 됨은 말할 것도 없다. 언어의 발음을 떠나서 인간의 교제는 상할 수도 없다. 그만큼 발음은 언어를 습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제2언어를 교육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어 교과서의 발음체계는 대체로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되어 있다. 한 가지는 자모만을 집중하여 배우고 한국어의 발음법은 본문에 나오는 문장의 발음에 근거하여 점차 습득하도록 되어 있다. 즉 한국어의 구체적인 문장 속에서 발음을 익히도록 한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한국어의 모음, 자음, 그리고 받침을 몇 단계로 나누고, 한국어의 가장 기본적인 발음 체계를 집중적으로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가지 경우가 다 한국어의 발음을 중요시하였는데, 전자의 경우는 한국어 습득자로 하여금 한국어의 발음을 언어적 환경 속에서 익히도록 하고, 한국어의 맞춤법과 언어사용 가운데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발음 변화를 동시에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어 발음체계 습득의 단조로움을 피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러한 방법은 단시일 내에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익혀야 하는 단기 강습반에는 아주 좋은 것이다.

한국어의 발음체계와 발음규칙은 완전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 상대적인 독립성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비교적 짧은 편폭을 가지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도 언어적 환경 속에서 한국어의 발음체계를 익히도록 교과서를 편찬한다면 한국어의 발음체계가 무시된 전제하에서 언어적 환경을 조성하게 되며 설사, 양자를 통일시키기 위해 애를 쓴다고 해도 양자간의 모순을 궁극적으로는 피할 수 없게 된다. 결국은 한국어의 발음문제를 경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게 되는 것이다.

어떤 언어를 막론하고 그 언어에만 있을 수 있는 발음체계를 갖고 있으

며, 같지 않은 성질의 두 가지 언어의 발음체계는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한국어를 습득함에 있어서 집중적인 시간을 이용하여 음소 하나하나를 모아 발음과의 대비 속에서 정확하게 습득하는 것은 한국어를 배우는 상당한 기간동안 적극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어를 전공으로 배우는 성인 대상의 한국어 교과서는 발음 단계를 설정하고 일정 시간 집중적으로 발음을 배울 수 있도록 편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특히 중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 발음단계에서 중국어 발음과 한국어 발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밝히고 중국인이 잘못 발음하거나 발음하기 어려워 하는 발음을 중점으로 익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한국어의 발음 문제를 발음단계에서 전부 해결할 수는 없으며, 발음교육은 한국어 교육의 전 과정을 관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발음단계에서 취급이 안된 표준 발음법들은 초기 단계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밝혀주어야 한다.

3. 단어 문제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과서의 두께는 단어의 수량에 의해 결정된다. 개발하는 교과서에 단어의 수량을 얼마나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단어를 기본으로 하여 취급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어 교육의 대상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한국어 교육 대상의 객관적 요구를 충분히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한국어 교과서라면 대학생들의 생활 환경과 그들이 반드시 습득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을 감안하여 단어들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며 그들의 한국어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단어의 수량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단어의 양이 적어 학습할 내용이 적어진다면 학습자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여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을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 그와 반대로 단어의 수량이 너무 많으면 한국어 습득자로 하여금 교과서의 전면적인 내

용의 학습에 지장을 주게 된다.

단어 문제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단어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같지 않은 언어의 모든 단어가 다 1 대 1로 대역되는 것이 아니며, 같지 않은 언어에서 단어의 다의성으로 하여 단어 의미의 일부는 공통되지만 다른 일부는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그리고 1 대 1로 대역되는 경우에도 문장에서 쓰이는 방식이 다르기도 하며, 어떤 단어는 다른 언어에는 없고 그 언어에만 독특하게 존재하기도 한다. 한국어의 단어는 아주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그 체계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한국어 단어체계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한국어의 단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과서는 단어를 취급함에 있어서 단어의 대역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와 함께 본문에서 나타나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언어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중요한 단어는 단어 해석과 함께 예문을 곁들여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본문 문제

한국어 교과서에서 선택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재료-본문은 매한 과에서 습득해야 할 내용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본문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국어 교육의 내적 법칙에 맞을 뿐 아니라 한국어 표현 방식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한국어 습득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국어 교과서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문제인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이지만 본문 작성에서 흔히 두 가지 경향을 보게 되는데, 한국어의 구조적인 측면을 기본으로 한 교과서는 문법과 문형의 순서를 우선 정해 놓고 거기에 알맞는 본문을 작성하는 반면에 한국어의 기능적 측면을 우선한 교과서는 문법, 문형을 무시하고 한국어 습득자가 생

활하고 있는 환경과 순수한 한국어의 습득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습득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모어와 완전히 다른 언어 형식이 표현하고 있는, 그 어떤 사회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본문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감수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이 그들의 한국어습득의 심리적 요구에 맞아야만 흥미를 가지고 한국어를 배워 갈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의 작성은 한국어 습득자의 습득심리를 정확히 헤아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문법, 문형의 순서를 배열하는 구조적인 측면을 기본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국어 습득자가 처한 사회생활과 그들이 요구하는 심리적 욕구를 파악하여 생활 배경과 화제를 설정하고 순수한 한국어의 표달방식에 맞게 본문을 작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문법, 문형의 점진적 순서배열이라는 그러한 구조적 측면이 어느 정도 무시되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한국어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에도 한국어습득의 기본 규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국어 교육의 초기적 단계에서는 한국어의 발음, 문법, 단어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제한성으로 하여 본문은 가장 직접적이고 간단한 사물로부터 작성될 수밖에 없으며, 문법과 문형도 간단한 데에서부터 점차 어려운 데로 확대하여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 구조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한국어의 내적인 법칙과 한국어 습득자의 심리적 욕구문제는 도외시되기 쉽다. 습득자가 한국어에 대한 감성적인 지식이 약간 쌓이게 되면 구조적인 측면은 무시한 채 한국어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본문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본문 작성에서 회화체와 서술체의 글이 적절하게 취급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나온 교과서들은 회화체의 본문만 있거나 서술체의 본문만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회화체로만 작성된 본문을 통해 한국어를 습득하게 되면 습득자의 말하기, 듣기 능력을 높이는 데는 이로운 점이 있지만 읽기, 쓰기 능력을 높이는 데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한국어 회화의 문법상 복잡한 특성으로 하여 습득자로 하여금 한국어 문법에 대한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으며 결국은 한국어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를 초래하게 된다. 한국어를 전공으로 배우는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한국어 교과서는 회화체와 서술체 본문을 적절하게 배합함으로써 한국어 습득자로 하여금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번역하기 등 능력을 종합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문화적 내용의 도입 문제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 그 첫 시작부터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모어의 문화와는 다른 한국문화를 접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어 교과서를 개발함에 있어서 어떻게 한국어 습득자가 처한 생활환경에 유리되지 않으면서 한국 언어의 습득과 함께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론, 실천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적 재료 속에 문화적인 요소가 융합되게 함으로써 한국어 습득 과정 자체가 모어 문화와 한국 문화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자면 문화적인 요소가 교과서 전체에 관통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특히 교과서에서 문화적인 내용이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본문의 선택이 깊이 연구되어야 한다. 한국어를 배운다고 해서 한국문화 소개에만 치우친다면 한국어 습득자의 심리적 요구와 그가 처한 생활 배경을 외면하여 결과적으로는 한국어 습득에 적은 영향만을 줄 것이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면서도 한국문화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내용만을 취급할 경우 또한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 수준의 제고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습득에도 소극적인 영향만 끼칠 것임은 당연하다.

한국어 습득자의 문화적인 수준을 파악하고 그가 처한 생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기초 위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배워야 하는 만큼 모어의 문화적 내용과 한국문화의 내용을 적절히 배합하고, 점차적으로 한국문화

에 대한 비율을 높여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어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어 교과서인 만큼 본문 등에서 한국문화 이해의 목적만을 위해 내용을 편성할 수는 없다. 한국어 습득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교과서에 열독 부분을 설정하고 전문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초기적 단계에서는 모어로 소개할 수밖에 없다.

6. 언어 규범 문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과서는 언어 사용 면에서 규범적이어야 하는 것은 구태여 더 말할 것이 못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개발하는 한국어 교과서의 입장에서 보면 언어 규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역사적인 원인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근 40년 동안 외국어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평양말을 표준어로 사용하여 왔으며 평양말을 규범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중국의 한국어 교육자들은 서울말보다 평양말에 익숙해져 있으며 서울말을 표준으로 사용하자고 해도 무의식 중에 평양말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말의 억양은 차치하고 한국어 교과서 편찬에서 발음, 단어, 문법 등에서 서울말의 규범을 엄수해야 할 것이며, 언어 표달의 방식에서도 서울말이 되어야 한다.

그 외 중국에서는 200만 조선족의 문화 중심지인 연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함경도 방언의 간섭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연변을 중심으로 하여 규범화한 중국의 조선족 언어는 평양규범, 서울규범과 같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개발된 한국어 교과서는 평양말에 기준한다고 하면서도 연변식 한국어 표현이 무의식 중 표현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된다. 한국어 교과서 개발에서 한국어의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규범을 잘 익혀야 할 것이며 서울말의 표달 방식까지도 부지런히 배워야 할 것이다.